

실틈없는 연말 복지공무원 '복지' 걱정되네

쏟아지는 민원·업무에 나눔행사 잇따라 야근은 예상일 두임3동 1인당 1370명 관리...찾아가는 서비스 힘들어

#. 광주에서 가장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북구 두임3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각종 나눔 행사에 참석해 새마을부녀회들과 함께 김치를 담고, 봉사단체 관계자들과 연탄을 배달한다. 연말이면 쏟아지는 생필품 등 후원물품 전달도 한 집이다. 직접 물품을 들고 어르신들을 찾아 다니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등 수혜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기본 업무다.

#. 북구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북구청 '복지누리동' 건물은 좀처럼 붐이 끼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연말을 맞아 쏟아지는 후원 관련 업무와 함께 장애인·노인단체 보조금 정산, 기초연금 지급 등 각종 사회복지 업무를 처리하느라 담당 공무원들은 매일 같이 야근을 하고 있다. 요즘 같아서는 주말을 투자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복지'가 걱정되는 연말이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수시로 바뀌는 복지제도를 공부하고, 쏟아지는 각종 민원과 업무를 처리하느라 전쟁을 치르듯 일하고 있다. 연말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새로운 후원자 발굴과 나눔 행사에 참석하느라 정작 자신의 연말은 챙기지 못하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광주지역 복지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5만8560명, 기초연금수급자 10만9252명, 등록장애인 6만8056명, 한 부모 가정 1만3400명 등 24만9268명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일선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복지공무원은 모

두 500명으로, 1인당 평균 498.5명의 수혜자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은 모두 211명으로, 1인당 평균 1181명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6851명(기초수급자 3041명, 기초연금수급자 2259명, 등록장애인 1551명)의 수혜자가 있는 북구 두임3동 주민센터의 경우 5명의 복지공무원이 1인당 1370명을 관리하고 있고, 오치2동은 4명의 복지공무원들이 1인당 1230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숫자로 본 광주 복지 실태	
복지 수혜자	24만9268명
복지 공무원	500명
1인당 담당	498.5명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더구나 주민센터 복지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 지침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관리, 교육, 기업, 공적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업무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화 통화를 20~30분씩 들어주고, 얼굴을 붉히며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진정시키는 일도 매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서구 사회복지대회 광주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서구 능성동 라페스타 웨딩홀에서 복지업무 종사자와 후원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지역 사회복지대회를 열었다. /김진수기자 jeans@

교육부-시·도교육청 누리 예산 갈등 고조

교육부, 예산 편성 거부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교육청 "예산 지원이 먼저...법적 조치 땀 맞대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끝내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법적 대응에는 법적으로 맞서겠다"며 "치킨 게임"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유아와 학부모를 불모로 한 이런 무책임한 처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부금'으로 다 내려졌는데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정부 논

리와 "대선 공약인데도 별도 재정지원 없이 시·도 교육청이 떠안게 했다"는 시·도 교육청의 입장 차가 여전한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경기·전남·광주 등 4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대구·부산·제주·대전·인천·충북 등 10곳은 내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고 나머지 7개 교육청 가운데 세종과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

았다. 교육부는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예산 지원 등의 상황 변화가 없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시·도 교육청도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예산 지원 등이 전제되지 않는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재의 요구도 받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내 잃은 슬픔 채 가시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김화란씨 남편 실형 선고

지난 9월 배우 고 김화란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김씨의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아내를 잃어 가슴 아픈데 과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24일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김화란의 남편 박모(48)씨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 박씨의 급제동 과실로 차가 넘어져 사망사고가 났다"며 박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박씨는 지난 9월18일 1t 트럭을 몰고 신안군 자은면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곡선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함께 트럭에 타고 있던 부인 김씨

가 숨졌다. 당시 박씨는 사고 직후 '보험금을 위해 고의 사고를 냈다'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다.

박씨의 실형 선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내를 잃어 가슴 아픈데 실형까지 선고됐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현행 법에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동승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 기준은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양형이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편,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여형사역을 맡아 인기를 모았던 김화란씨는 2년 전 남편과 함께 신안 자은도로 귀촌했다. 특히 2년 가까이 재능을 기부해 지역 초등학교들의 연기 지도를 도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인터넷 시험 대리시험...학생 4명 징계 착수

전남대 100여명 재시험

전남대 공과대학은 기말고사에서 부정시험을 치른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과대학 A학부의 한 수업 기말고사에서 2학년 B씨 등 4명이 짜고 부정 시험을 치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강생 100여명이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을 벌였다.

전남대는 수강생 B씨 등 2명을 대신해 같은 학생 C씨 등 2명이 시험장 밖에서 인터넷으로 대리 시험을 치른 것으로 파

악했다. 이들은 해당 과목 시험이 실습 방식으로 인터넷에 아이디를 접속해 처리하는 점에 주목, B씨 등이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고 수강생이 아닌 C씨 등은 외부에서 실제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부정 행위는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계사판 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발각됐다. 공과대학은 B씨 등 해당 과목 수강생 2명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는 한편, C씨 등 4명의 징계 절차를 진행중이며 재발 방지 시스템도 구축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 받은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회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교사는 제자 때리고...화해 자리서 학부모는 교사 때리고

○"기본 나쁘게 웃었다"며 제자를 수차례 폭행한 50대 고등학교 교사와 이 교사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학부모가 나란히 경찰서행.

○2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목포시 죽곡동 한 사립고교 진로상담 교사 정모(50)씨는 지난 4일 낮 12시에 제자 박모(17)군을 학교 휴게실로 불러내 떡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했고,

박군의 아버지(42)는 다음날인 5일 밤 9시께 목포시 상동 한 학교 운동장에서 정씨를 폭행한 혐의.

○정씨는 제자가 자신을 향해 비아냥거렸으며 주먹을 휘두르고 박군의 아버지는 화해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